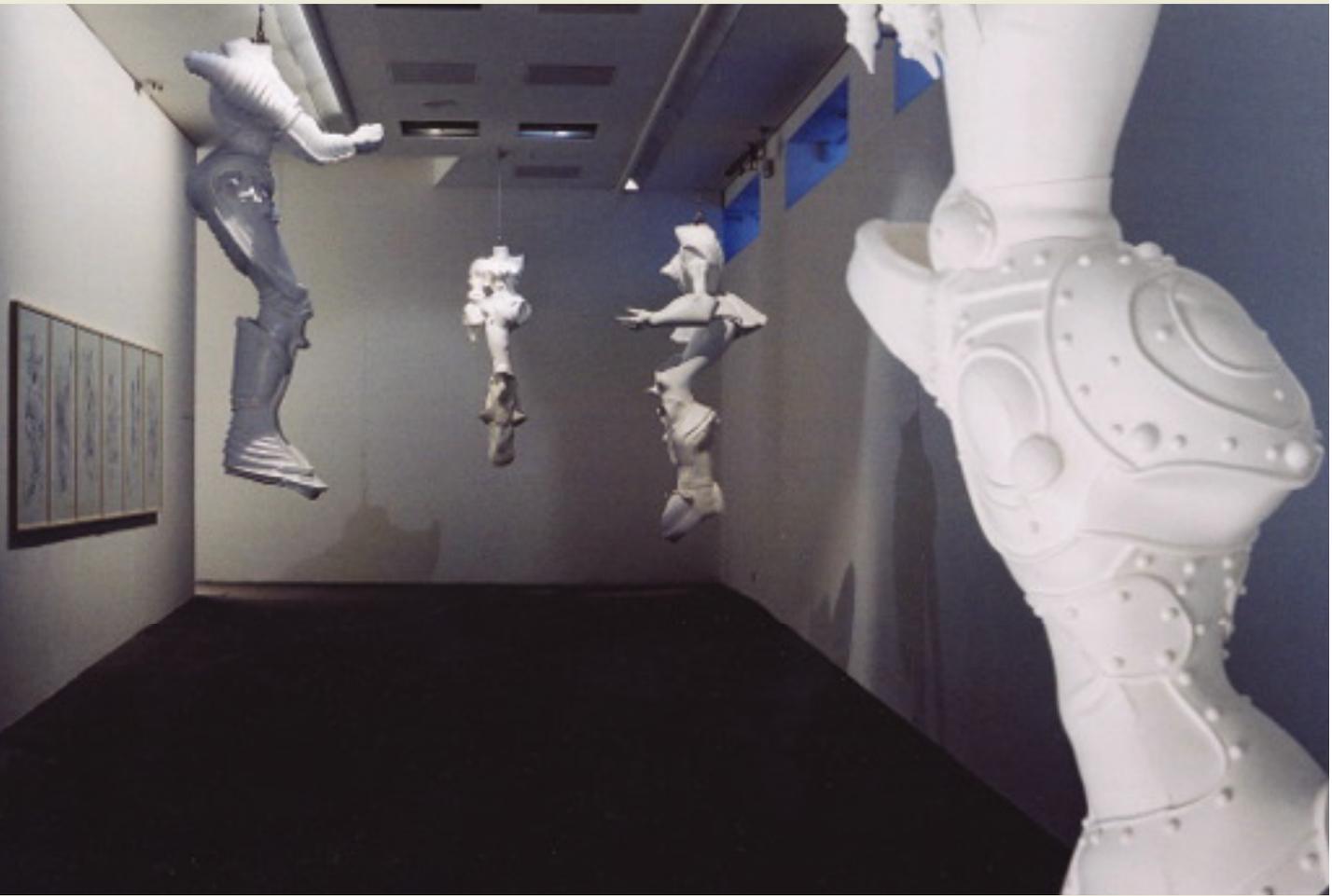


사이보그와 몬스터

성(性)과 신체적 담론을 통한
남성 중심적 사고의 해체



이 불, <사이보그들(Cyborgs) W1 - W4>, 실리콘과 안료, 폴리우레탄 줄로 천정에 매달, 1998, A Reinhard Mayr

김 찬 동 · 전시기획자 | 본원 미술전문위원

'90년대에 들어서면 모더니즘과 사회적 리얼리즘 진영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유지해오던 1980년대까지의 화단 질서가 급격하게 변모하기 시작한다. 변화된 정치,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문화지형상의 다원성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도는 여전히 이분법적 구도의 거대담론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창작 현장에서는 다양한 작은 담론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심도 있는 논의들과 문화연구와 관련된 해외정보의 신속한 유입은 이러한 정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종래와 같은 단순한 구도로는 다원화된 미술현상들을 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탈장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혼용과 함께 순수예술의 위상이 강한 도전을 받게 되고, 페미니즘과 같은 문화적 주변부의 영역들이 중심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젊은 작가들은 기성화단의 제도적 속성과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게릴라와 같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불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매우 전위적 작가로 평가된다. 1987년 '뮤지엄' 그룹을 통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녀는 기존의 남성중심의 시각에 대해 다양한 이의를 제기하는 작업들을 선보였다. 자신의 벗은 몸을 천정에 매달거나 괴물 형상의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세계관이 가져왔던 여성 신체의 왜곡과 억압기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지속하였다. 그녀의 작업은 성(gender, sexuality)에 관한 문화담론이 미술과 생산체제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 다각적으로 탐구하여 왔다. 이 성에 대한 문제는 신체와 여성성에 대한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녀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시각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이분법적 구조 속에 작동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르와 소재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과 삶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업을 시도해 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적으로 큰 인지도를 얻고 있는 그녀의 작업은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사이보그(cyborg)와 몬스터(monster) 시리즈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이들 작업은 그녀가 그동안 추구해 오던 중심 문제들을 좀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cybernetic)과 오거니즘(organism)의 합성어로서 '생물과 기계장치의 결합체'를 뜻한다. 몬스터는 기괴한 모양을 한 동물이나 식물 또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병리적 기형어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극악무도한 사람, 거대한 동식물이나 물건 또는 무서운 위력을 가진 것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녀의 사이보그와 몬스터 시리즈는 폭력적이며 반유토피아적 속성을 가진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착안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완벽한 신체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자연으로서의 인체에 가하는 인공적인 조작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공포가 융합된 미래적 인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의 사이보그의 왜곡된 형태들은 서양미술사에 등장하는 비너스나 올랭피아 등에 나타난 이미지의 원형을 차용한 것으로서, 이는 미의 전형으로 인식된 기존의 재현방식 속에 작동되는 남근숭배적 이데올로기를 들추어 내는 어법으로 사용된다. 그녀의 몬스터는 '해부학적 완벽성'으로 이해되는 남성의 신체에 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완전하며 위험한 기제로 이해되어지는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다. 그러나 그녀의 몬스터는 그가변성과 괴물성을 극대화하여 기존의 합리적 질서와 가치들을 교란시키는 자의식이 강한 여성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녀의 <사이보그들 W1-W4>(1998)는 여성성으로 형상화된 미래형 인간이 가지는 성(性)과 신체에 관한 담론을 통한 여성성에 대한 주체적 표현이다. 그리고 미래적 인간형의 가변성과 불확정성이 가지는 잠재력과 두려움을 적절하게 구현해냄으로써 현대사회에 내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남성 중심적 사유와 그 핵심을 구성하는 합리적 세계관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기도 하다. 🌈